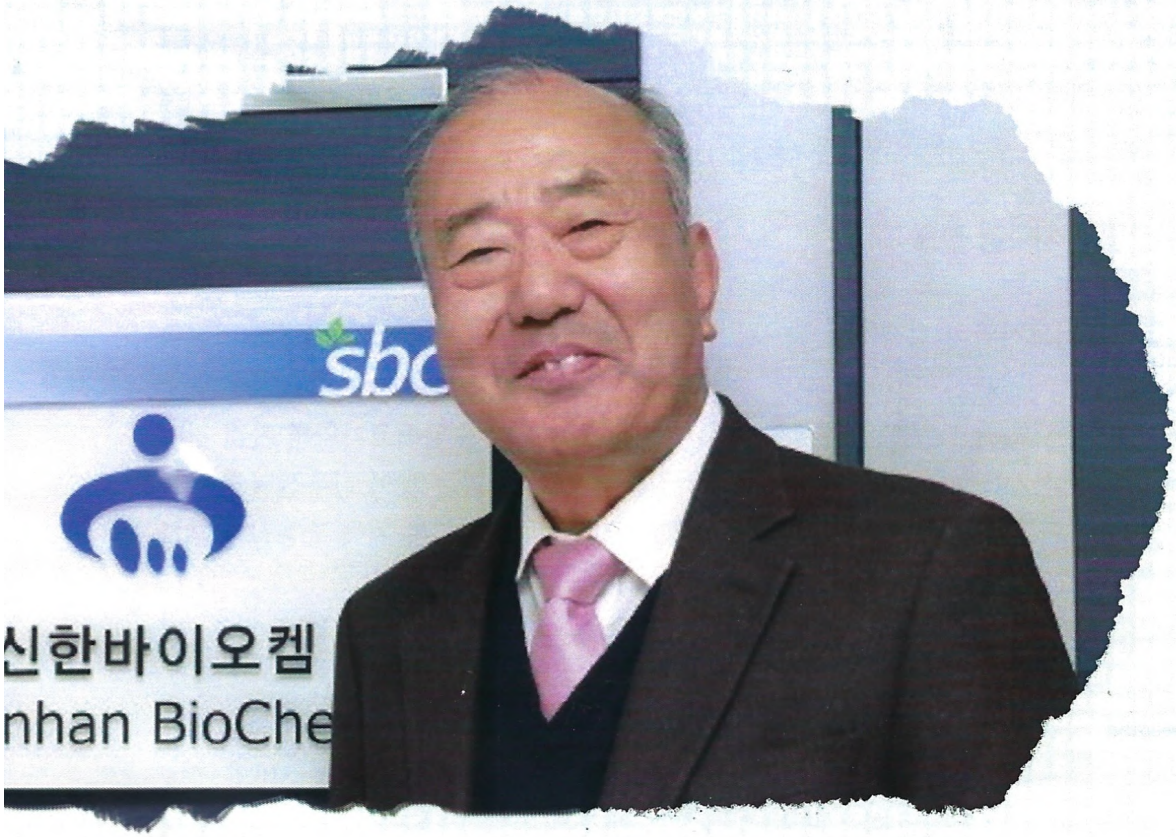
구본현 신한바이오켐 회장

"한우산업 지속가능하려면 최고급육 생산해야"

1++A·1A간 두당 약 350만원 소득 벌어져



"한우(韓牛)는 농경시대 가장 중요한 역용(役用) 가축이었고 김해 부근 가야시절 패총(貝塚)에서 한우 뼈가 발견되기도 했을 정도로 오랜 옛날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우산업은 사료비 등 생산비가 증가한 가운데 한우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며, 여기에 자유무역 협정(FTA)으로 인해 2026년부터 수입 쇠고기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큰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한우농가들은 고품질 한우 생산을 통해 자가 경쟁력을 갖춰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달 8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소재 신한바이오켐 회의실에서 만난 구본현(신한바이오켐) 회장은 최근 한우산업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한우는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 보급 확대와 국민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쇠고기 수요 급증으로 1970년대 후반부터 역용 가축에서 육용 가축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구본현 회장은 "이후 5천여년간 내려온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시절은 식량 자급자족 목표와 함께 우리 곁을 떠났지만 자동차, 선박, 반도체 등 첨단 분야가 현재 국내 주력산업이 되었고, 그 덕분에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에서 10위권으로 진입했다"면서 "또 지난 35여년간 국민 1인당 연간 소득은 약 15배 증가한 3만5천달러를 넘어섰고, 국민1인당 연간 평균 쇠고기 소비도 1985년 3kg 수준에서 현재 14kg으로 5배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이 과정에서 세계 여러 국가와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FTA)으로 인해 우리 농·축산물은 해외 농·축산물과의 품질 및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면서 "특히 한우산업의 미래는 2026년부터 무관세로 수입되는 쇠고기와의 품질 및 가격 경쟁에서 어떻게, 얼마나 국내 소비자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화우(和牛)산업 벤치마킹 필요

구 회장은 한우가 수입쇠고기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가격보다 품질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우산업은 건초, 사료 등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쇠고기와의 가격 경쟁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품질 차별화로 생존 기지(基地)를 확보하는 것이 한우산업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동안 한우산업은 수입쇠고기와의 차별화를 위해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고자 노력해왔지만 최고급 한우를 꾸준하게 생산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다.

특히 "일본 화우산업은 한우산업보다 먼저 수입개방의 파도를 슬기롭게 극복했기 때문에 한우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들의 경험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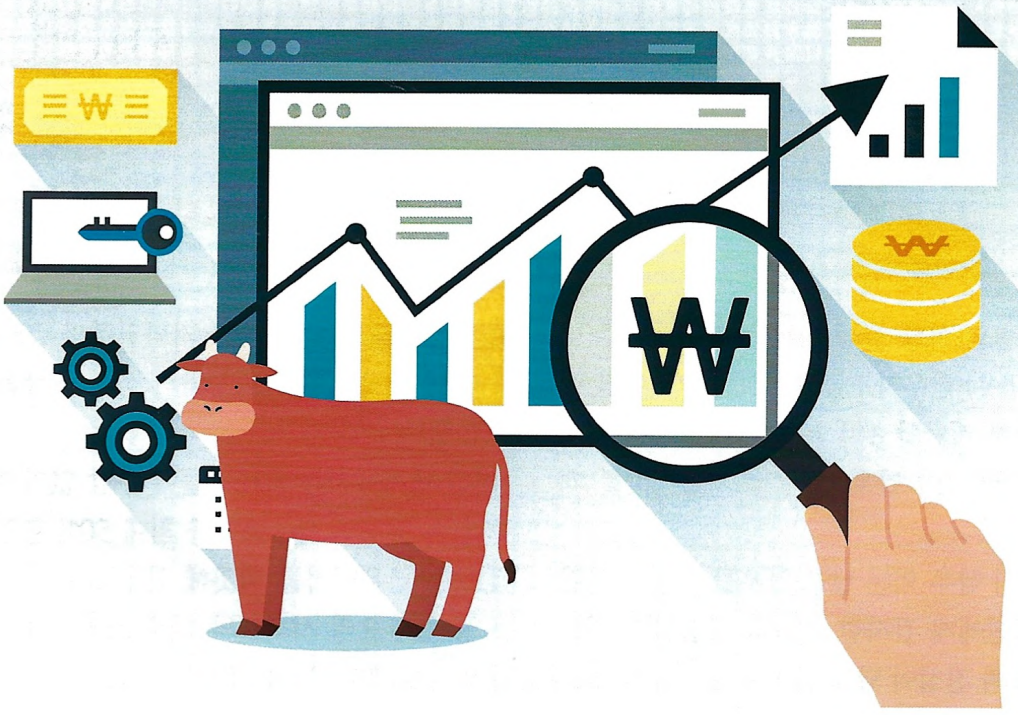
그러면서 "근내(筋內) 지방(脂肪)이 적절히 분포된 쇠고기를 선호하는 일본의 소비계층은 수입쇠고기가 아무리 저렴해도 화우(和牛)를 구입한다"면서 "또 관광으로 일본을 다녀온 각국의 소비자 중에서 일본에서 경험한 마블링이 잘 형성된 화우(和牛) 맛을 잊지 못하는 이들이 각국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쇠고기 주요 수출국인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자국의 특수 소비계층을 위해 화우(和牛)를 수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적 개선에 '이스트컬추어'·'마블맥스1·2·3' 탁월

이처럼 한우산업도 1++등급의 한우고기를 꾸준히 생산할 수 있고, 또 이를 선호하는 소비 계층만

확보할 수 있다면 수입쇠고기가 아무리 낮은 가격으로 국내 소고기 시장을 공격해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구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실제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한우 거세우 1++(9)A등급의 평균 경락가격은 kg당 2만4천94원이었으며 1A등급은 1만6천545원으로, kg당 7천549원이 차이 났다"며 "거세우 평균 도체중을 465kg으로 계산했을 때 같은 한우이어도 농가에서 소를 어떻게 사육하느냐에 따라 두당 약 350만원의 소득이 벌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우농가들은 농장 내실화를 다져 고급육 성적을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구 회장은 "자사의 1위 발육 촉진에 탁월한 '이스트컬추어'를 비롯해 육성기, 비육전기, 비육후기 등 각 구간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마블맥스1·2·3'이 농장성적 개선에 큰 효과를 보인다. 실제로 이 제품을 급여한 한 한우농가는 최근 14두의 거세우를 출하해 13두가 1++등급이었으며, 1두는 1+등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구 회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선한 축산물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국내 축산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관계자 모두의 사명이자 긍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병욱】